트럼프 장남 "아버지, 한반도 평화에 첫걸음"

저서 발간…트럼프 치적 추켜세우고 민주당·언론 등 맹비난
"父, 완전 믿는 사람 거의 없어"…뮬러 특검에 "한물간 꼭두각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겠지만 평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5일(현지시간) '분노폭발:좌파는 어떻게 증오를 즐기며 미국을 침묵시키길 원하는가'라는 책을 발간했다.

그는 백악관 선임보좌관을 맡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활동을 돕는 딸 이방카와 달리 아버지의 사업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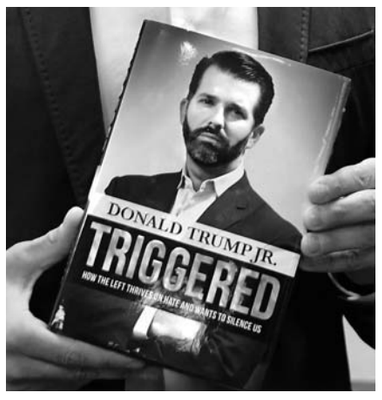
트럼프 주니어는 이 책에서 "수십 년 간 무대책 후에 아버지는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면서 "아무도 이를 인정해주진 않겠지만…"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어느 날 두 살배기 딸과 아침 식사를 하면서 TV에 나온 한 북한 전문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의향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을 봤던 단상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그 순간 나는 북한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내 어린 딸이 TV에 나온 전문가와 똑같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생각이 분명해졌다"며 이 전문가를 에둘러 비판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 책에서 민주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이 추진하는 '그린 뉴딜'을 비판하면서 "중국, 북한과 맞서는 데 행운을 빈다"고 비꼬기도 했다.

아마존의 책 광고문에 "좌파 엘리트들은 당신이 이 책을 읽기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을 정도로 도널드 주니어는 책에서 도발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2016년 대선 때 러시아 측과 트럼프 대선 캠프의 선거 개입 공모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에 대해 "한물간 늙은 꼭두각시"라고 비하했다.

또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온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에 대해 "아버지가 상대하기 가장 쉬운 후보"라고 혹평했다.

언론을 향해서는 "국민의 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책 출간을 기념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현재 민주당이 너무 왼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지금 나온다면 '신(新) 나치 테러리스트'라고 보고 거부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CBS방송과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 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꼽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보수주의자로서 지난 50년간 화를 애써 참았다"며 "우리는 민주당이 싸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고, 사람들이 익숙지 않아 많은 논쟁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책에서 "아버지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할 때까지 정치권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내가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만큼이나 거리가 멀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 관심에 사로잡혔다"며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아베정권, 소녀상에서 손 떼라"

美 글렌데일서 日 총영사 철거 망언 규탄집회

"아베 총리는 평화의 소녀상에서 손을 떼라!"

해외에 최초로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북쪽 소도시 글렌데일에서 5일(현지시간) 아키라 무토 LA주재 일본 총영사의 망언을 규탄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이 열렸다.

올해 부임한 아키라 총영사가 최근 글렌데일 시의원들에게 "여기서 내 유일한 임무는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프랭크 퀸테로 시의원(글렌데일 전 시장)의 폭로 때문이다.

퀸테로 시의원은 최근 노스리지대학에서 열린 위안부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主戰場) 상영회 이후 질의응답에서 "총영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일본 정부가 수년간 추진해온 그것, 그 상징물(소녀상)을 없애는 것만 얘기하고 싶어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위안부행동(CARE) 김현정 대표는 "일본 총영사가 글렌데일 시의원들을 상대로 소녀상 철거 망언을 한 건 단순하고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면서 "시의원들에게 대놓고 압박을 가한 데 대해 우리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주 3·1 여성동지회 고문은 "일본 정부, 자기네들이 뭐길래 소녀상 건립에 반대하고 항의하냐"면서 "한인들이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한마음으로 십시일반 기부하고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는 "역사는 숨길 수 있는 것도,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아직도 사죄하지 않는 일본 우익정부에 알려주고 싶다"면서 "할머니들과 전쟁범죄 희생자 가족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이건 한 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인류의 보편적 인권의 문제다. 소녀상이 영원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과 배상을 위한 일본(NCRR) 전 공동의장 캐시 마사오카는 "모든 위안부 할머니와 커뮤니티가 이 소녀상을 상징한다"면서 "일본 정부와 총영사는 이런 커뮤니티의 연대를 모를 것이다. 아르메니아계, 라티노, 흑인, 한인, 일본인까지 함께하는 연대의 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해외 최초의 소녀상이 세워진지 6년이 지났고 캘리포니아 교육부가 위안부 문제를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하는 등 전 세계가 여성 인권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때 단 한 세력만이 시대착오적인 망발을 하고 있으며 이는 바로 아베 정권이라면서 "아베 정권은 반여성, 반인권 정권"이라고 규탄했다. /연합뉴스

'틀니' 매일 손질 안하면 고령자 폐렴 위험 1.58배

틀니를 한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틀니를 매일 손질(청소)하지 않으면 폐렴에 걸릴 위험이 매일 손질하는 사람에 비해 1.58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본 도호쿠(東北)대학 치학연구과 아이다 준(相田潤) 교수 연구팀이 돌봄(개호)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고령자로 틀니를 한 아이치(愛知)현 등지의 7만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NHK가 5일 전했다.

연구팀은 조사 대상자의 틀니 손질 빈도와 과거 1년간의 폐렴 발병 여부를 조사, 분석했다.

연구 결과 과거 1년간 폐렴을 일으킨 사람의 비중은 ▲틀니를 매일 손질하는 사람의 경우 23%인데 비해 ▲매일 손질하지 않는 사람은 30%로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매일 손질하는 사람은 29%인데 비해 ▲매일 손질하지 않는 사람은 43%에 달해 다른 요인도 고려할 경우 폐렴에 걸릴 위험이 1.58배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매일 손질하지 않으면 틀니에 세균이 증식, 음식물과 함께 폐로 들어가 폐렴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다 교수는 "매일 틀니를 청소하면 폐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자는 매일밤 손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경제 불평등 해결하라" 칠레 3주째 시위 칠레 정부의 경제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5일(현지시간) 대통령궁 주변에서 진압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 시위 대학생 의식 불명

최루탄 피하다 추락…"경찰, 구급차 진입 방해" 증언도

홍콩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을 피하려다가 주차장에서 추락한 대학생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사고 당시 경찰이 구급차 진입을 막았다는 증언도 나와 큰 파장이 일고 있다.

6일 홍콩 명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시 무렵 홍콩 정관오 지역의 시위 현장에 있던 홍콩과기대학 학생 차우츠록(周梓樂) 씨가 경찰이 쏜 최루탄을 피하려다가 지상 주차장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졌다.

차우 씨는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뇌출혈을 일으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인근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된 차우 씨는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병세는 갈수록 악화해 뇌사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병원 관계자는 전했다.

더구나 그가 주차장에서 추락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찰이 구급차의 진입을 막았다는 증언까지 나와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스마트폰 자주 보는 유아 뇌 발달 지연

美 아동병원 연구팀, 스크린 노출 하루 1시간내 제한 권장

유아기(2~6세)에 스마트폰, TV, 태블릿 컴퓨터를 자주 보면 뇌 기능 발달이 늦어진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신시내티 아동병원의 존 허튼 박사 연구팀이 3~5세 아이들 47명(남아 20명, 여아 27명)의 뇌 MRI 영상, 인지기능 테스트, 스크린 노출 시간에 관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CNN 뉴스 인터넷판과 헬스데이 뉴스가 5일 보도했다.

뇌 MRI 영상 분석에서는 스크린 노출 시간이 많은 아이일수록 뇌 백질의 발달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뇌 전체 신경세포에 전기적 신호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신경 임펄스 속도가 느렸다.

연구팀은 특히 뇌의 백질을 잘 살펴볼 수 있는 확산 텐서 MRI를 이용했다.

뇌의 백질은 특히 언어(읽기, 쓰기 등), 정신 조절, 자기 조절 기능이 발달하는 곳이다.

실제로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스크린 노출 시간이 많은 아이는 물건의 이름을 빨리 대는 정신처리속도와 읽기-쓰기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 과정에 있는 뇌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실생활로부터의 자극이 있어야 기능이 향상된다고 허튼 박사는 설명했다. 어린아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실생활과의 상호작용, 스스로의 감각을 이용하면서 성장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스크린 노출 시간이 많아 지연된 뇌 기능 발달은 나중에 만회될 수 있겠지만 시간을 놓치면 뇌의 변화가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그는 지적했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생후 18개월 이전에는 스크린 노출을 절대 피해야 하고 생후 18~24개월에는 양질의 프로그램만 보게 하되 반드시 부모가 함께 볼 것이며 2~5세에는 노출 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의사협회 저널 소아과학(JAMA Pediatrics) 온라인판(11월 4일 자)에 발표됐다. /연합뉴스